

= 대관령 산악관광(곤돌라, 산악열차) 조성사업 =
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

□ **개 요**

- 일 시 : 2019. 11. 26.(화), 10:00~12:00
- 장 소 : 산림과학연구원 산림박물관 세미나실
- 참 석 : 13명
 - 강원도(5) : 정경수 산림소득과장, 문진철 산악관광담당, 김진성 · 박연수 · 최인식 주무관
 - 평창군(2) : 이주하 산림복지담당, 장유진 주무관
 - 하늘목장(2) : 최재돈 목장장, 진병순 차장
 - 삼양목장(1) : 권영식 부장
 -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(2) : 문지호 책임연구원, 이형덕 연구원
 - 동부엔지니어링(주)(1) : 김종엽 책임연구원
- 주 관 : 강원도 · 평창군

□ **주요내용**

-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따른 용역과업 수행결과 보고
- 수행상황 추진에 따른 관계관 자문 · 종합토론 등

《 용 역 개 요 》

- ▣ 대관령 산악관광(곤돌라, 산악열차)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
 - 용역기간 : 2019. 7. 29. ~ 11. 28.(123일) * '19. 7. 29. 계약
 - 용역수행 :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(대표사), 동부엔지니어링(주)(분담이행사)
 - 총 계약금액 : 금55,913,450원
 - * 계약금액 : 대표사(54%, 이윤제외) 28,865,450원, 분담이행사(46%) 27,048,000원
 - * 분담비율 : 강원도 50%, 평창군 50%

□ 인사말씀(산림소득과장)

- 대관령 산악관광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과업수행에 수고했음
-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이라,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
- 안타까운 현실이지만, 강원도의 산악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,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, 추진 가능사업을 발굴 바람

□ 용역 관계자 의견제시

【 강원도 정경수 산림소득과장 】

- 지사님은 우선 사업추진 의지 강함
- 대관령은 전국민에게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임. 산악열차(테스트베드) 설치만으로도 관광객 유입효과 극대화 예상

【 강원도 문진철 산악관광담당 】

- 산악열차, 곤돌라 설치를 강원도 주관으로 추진시 회사 의견은?
- 산악열차 조기 추진을 위해 테스트베드 설치 위해 노력. 종료 후 철거하지 않고, 하늘목장에서 인수 운영계획
- 강원도의 산악관광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평창군 지휘부의 의견
- 산악열차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설치해야 하는 문제로, SPC 설립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요청(용역사)

【 하늘목장 최재돈 목장장 】

- 대관령 산악관광 사업은 경제성보다 관련 법률에 막혀 추진 어려움. 추진 불가능한 사업은 조기 중단하고,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음
- 산악열차 테스트베드 설치 및 운영 종료시까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, 시설의 처리 문제발생. 테스트베드 종료 후에는 직접적인 영입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면밀한 검토 필요
- 테스트베드 설치 위해 국유지의 반지가 수반되어야 함. 테스트베드 종료 후 하늘목장에게 재대부를 담보 가능 우려
⇒ 재대부를 전제로 한 테스트베드의 설치 찬성함

【 하늘목장 진병순 차장 】

- 현재 목장내 트랙터마차를 이용 연간 20여만명 운행 수익 달성.
- 사업비 365억원을 투입하려면, 현재 수익의 3~5배는 담보되어야 투자가치를 갖을 수 있을 것임.

【 삼양목장 권영식 부장 】

- 곤돌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는 삼양목장 내 사유지임. 강원도의 사업추진 의견에 대해 회사 지휘부는 기타 상업시설이 동반되지 아니한 곤돌라 사업추진은 불분명

【 평창군 이주하 산림복지담당 】

-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강원도의 사업추진 의견에 동감.
- 강원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악관광 사업추진을 위해 지금 추진 가능한 사업(곤돌라 등)은 조속히 시행 바람

향후계획

- 용역 최종보고서 및 준공계 접수 : 11. 28일까지
- 준공검사 및 준공금 지급 : 12. 11일까지

[붙임 1]

[관련 사진]



[용역과업 수행결과 보고]



[산악관광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관계관 자문 및 종합토론]